

2019 새 설계

황 속 주 순창군수

#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 만들기 최선”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속주 순창군수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균형 방향을 담은 사시성(時時性)으로 시시각각 살피고 기미마다 살피라는 뜻의 ‘유시유기(惟時惟幾)’로 정했다”며 “정확대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을 느끼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어낸 황 군수는 올해를 공약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각오다.

황 군수는 ‘복지가 먼저인 순창’ 건설을 위해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운을 댔다.

우선 순창읍에 집단활동실과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재활운동실 등을 갖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복누리센터 내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언어발달실, 교육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해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정책

### 참살이 발효마을 본격 추진

### 국내 최장 체계산 구름다리 건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여가활동보장을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급식도우미 사업을 전년대비 2개월을 확대해 6개월간 추진하며, 북흥면 소재지에 노인교실도 건립해 어르신의 사회교육 활성화에 노력한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에서 운영중인 노인대학도 24개 강좌에서 28강좌로 증설해 노인들의 교육 욕구 충족에도 기여한다.

순창의 미래 성장 동력사업인 발효분야 산업의 발굴과 지원에도 힘을 계속한다.

군은 올해 장내유용미생물은행과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참살이 발효마을을 조성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황 군수는 “순창 100년을 이끌 발효분야 산업화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고 군민들 기대 또한 크다”며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인근에 조성중인 참살이 발효마을 완공되면 민속마을과 시너지 효과를 이뤄 전국적인 명소가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

다.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도 이어간다.

군은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270m 국내 최장 체계산 구름다리 건설사업을 진행중이다.

체계산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산에 이어 순창군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체계산 90m지점에 들어설 구름다리에서 보는 섬진강과 적성면 들녘의 풍경 조성을 위해 유색벼 경관조성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강천산에서 체계산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을 섬진강 장군목 일대로 유도해 1박2일 체류형 관광코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섬진강 장군목은 천혜의 수석공원으로 기암괴석이 3km정도 늘어서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올해까지 사업비 46억원이 투입되는 용골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힐링이 필요한 도시민 관광객들에게 명소가 될 전망이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격 문화도시를 향한 정책도 언급했다.

군은 매년 옥천골미술관에서 5-6회 가량의 기획전을 진행해 군민에게 미술품을 무료로 관람할

##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복지가 먼저인 순창 건설로 군민행복 보장
- ▲미래 성장 동력사업인 발효분야 산업의 발굴과 지원
-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500만 관광객 유치
-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격 문화도시 구축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군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은 ‘인문독서 아카데미’, ‘상주작가 지원사업’, ‘길 위의 인문학’ 등 30개 과정 800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황속주 순창군수는 “올해가 순창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등장한지 1000년 하고도 1년이 되는 해로, 천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며 “자라나는 후손들이 자랑스런 순창에서 삶을 영위하며, 순창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익산시, ‘그린에코시티’ 조성 주민 정주여건 개선

### 2023년까지 280억 투입 가로수 500만 그루 식재

익산시가 ‘Green Eco City’ (그린 에코 시티) 조성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숲 조성을 통해 도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500만 그루의 나무를 지역 곳곳에 식재해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휴토지와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도심 속 숲을 조성한다.

또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 중앙분리대 정비 등을 통해 푸른 네트워크 조성에도 속도를 올린다.

시는 또 임야 조림사업에도 주력한다. 경제수 조림과 산림재해방지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의 마련이 그 복안이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명상 숲 조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전자연적인 교육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익산지역의 공원과 녹지 125개소에 수목을 식재하는 도시공원 조성에도 주

력한다. 특히 출생, 입학, 취업, 결혼 등을 기념하는 ‘시민 나무 갖기 운동’을 전개해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기업체 등에도 나무식재를 독려해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푸른 익산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대기의 질 향상과 힐링 공간 마련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정읍시, 미세먼지 차단

### ‘도시 숲’ 5곳 만든다

정읍시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8억원을 들여 5개의 도시 숲을 만든다.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주민 쉼터 기능을 하는 학교 내의 명상 숲 2개, 시내 주택 밀집지역의 놀리는 공유지를 활용한 생활권 도시 숲 2개, 공단 인근의 미세먼지 차단 숲 1개 등이다.

24km 구간의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는다.

정읍시 관계자는 “도시 숲은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큰 만큼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 숲 조감도.

## 세얼굴

### “안전한 정읍, 따뜻한 경찰 총력”

#### 신일섭 정읍경찰서장



“안전한 정읍, 따뜻한 경찰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제70대 정읍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신일섭 총경은 “주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 모두 언제 어디서든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해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안전한 지역지안을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임실 출신인 신서장은 전주교과경찰대(4기)를 졸업하고 고창경찰서장과 전북경찰청안전과장, 순창경찰서장, 전북경찰 경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2040년 목표 도심기본계획 수립

군산시가 변화하는 도시여건을 고려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목표연도 2040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정책적·종합적인 계획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8억원 규모로 용역을 발주, 이달 안에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동안의 확장적 개발 중심에서 압축적 재생·관리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인구 구조변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또 시정방침인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바탕으로 원도심을 포함한 도심의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추구할 계획이다.

올해 초 용역이 착수되면 올해 말까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2020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500평, 8500만원 투자, 투자가치 충분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함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